

기독교 상담과 목회 현장

강병문(Ph.D. 총신대학교 · 교수)

I. 여는 글

한국의 목회 현장을 기독교 상담학적 입장에서 둘러보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 문제 분석을 토대로 기독교 상담의 방향을 잡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먼저 상담이 개인의 인격형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학문이고 이론 학문이 아닌 실천학문인 것을 보면 상담의 현장을 분석하고 그 것에 적합한 이론을 내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일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목회 현장을 파악하는데 총신대에서 저자의 지도아래 논문을 낸 “목회자의 탈진”¹⁾, “기독교 신앙생활과 부부간 의사소통, 우울증, 결혼만족도의 관계”²⁾, “기독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³⁾의 세 논문을 통해 목회 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논문은 한정된 지역의 몇몇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자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1) 최종철, “목회자의 탈진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목회자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2).

2) 성은숙, “기독교 신앙생활과 부부간 의사소통, 우울증, 결혼만족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3).

3) 최승희, “기독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3).

II. 목회 현장에 대한 고찰

A. 목회자의 탈진

1. 연구대상 및 표본

본 연구는 총회 목회대학원 2002년도 여름 학기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162명에게 개인의 인적사항, 탈진 척도를 포함한 2가지의 질문검사지가 실시되었는데 배부 후 회수된 질문지는 총 96부였다. 이중에 질문검사지를 성실하게 답변한 목회자 91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관련 선행연구로써 박혜성이 1998에 사용한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에 관한 연구”, 이홍배가 2000에 사용한 “목회자 탈진 클리닉”, 이관직이 1994에 사용한 “Stress and Burnout Among Korean-American Pastors in American Culture”를 기초로 하여 총 65항목을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 8문항과 목회자의 가정생활 및 목회사역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21문항, 탈진척도에 관한 질문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이관직이 개발한 Lee Burnout Inventory를 번역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을 상담학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 $\alpha = 0.9373$ 이었다. 탈진정도 측정도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not related to me)” 면 0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never true for me)” 면 1점, “드물게 있었다(infrequently true)” 면 2점, “가끔씩 있었다면(sometimes true)” 면 3점, “자주 있었다(after ture)” 면 4점, “거의 항상 있었다(almost always true)” 면 5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탈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이 연구도구를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도구

내용		문항
목회자의 개인신상정보		Part A 1~8문항
목회자의 가정생활		Part B 9~29 문항
탈진척도	신체적 탈진	1~6 문항
	정서적 탈진	7~9 문항
	사회적 측면	10~11 문항
	정신적 측면	12 문항
	영적 측면	13~16 문항
	비개인화	18~21 문항
	개인적 성취	22~33 문항
	체계적 측면	34~36 문항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2002년 8월 10일 원우회 임원한테 직접 전화를 통해 협조를 구하였으며, 설문조사가 있기 일주일전(12일)에 원우주소록을 참고하여 e-mail주소가 있는 71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8월 19일부터 20일 까지였으며, 이 기간 동안 연구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배포 및 회수하였다. 총 122를 배부, 96부(회수율 78.6%)를 회수 하였다. 96부 중, 응답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경우, 현재 사역하지 않고 있는 무임목사의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최종 91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적 통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SPSS/Win 10.0 Version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목회자를 통해 수집된 설문지는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탈진 척도를 통해 수집된 질문지는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8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또한 문항간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분석을 실시하였다. 목회자의 가정생활이 목회자의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일원변량분석 (목회자의 가정생활 * 목회자의 탈진) ANOVA를 실시하였다.

5.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연구 질문의 순서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배경학적 특성, 제2절에서는 목회자의 탈진의 실태와 현황, 제3절에서는 목회자의 탈진에 미치는 요인, 그리고 마지막 제4절에서는 목회자의 탈진과 목회자의 가정생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한다. 설문지를 통한 자료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 대상의 일반 정보(인구 배경학적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한 수는 총 91명 이었으며, 연령층으로는 35~45세가 40.7%이며 45~55세가 42.9%로 40대 후반이 주층을 이루고 있다. 결혼기간은 15~25년이 48.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5~15년이 33.0%, 25~35년이 15.4% 순이었다. 거주지로는 중소도시 이상이 7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목회지를 지방보다는 도시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종학력으로는 신학대학원졸업이 79.1%, 일반대학원졸업이 15.4%로 전체 94.5%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 나타났다. 소속교단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가 49.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개척이 8.8%로, 합동 정통이 7.7% 순이었다. 교회직분으로는 담임목사가 8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수목회(군목, 경목, 원목, 교목등)가 6.6%, 부목사가 3.3% 순이었다. 목회한 년수로는 5~10년이 31.9%, 10~15년이 30.8%, 15~20년이 18.7%, 5년 미만이 13.2%, 20년 이상이 5.5% 순이었다. 배우자의 직업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8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 목회자의 아내가 전업주부임을 나타내고 있다. 정규적 휴가에서는 없다는 46.2%, 일주일이 20.9%, 3일이 15.4%, 10일이 6.6% 순이었다. 종합검진은

받은 적 없다가 47.3%, 1년에 한번이 18.7%, 3~4년에 한번이 17.6%, 2년에 한번이 15.4% 순이었다. 연간 성역비로는 3000만원 이하가 44.0%, 2000만원이하가 24.2%, 4000만원 이하가 17.6%, 5000만원 이하가 6.6% 5000만원 이상이 1.1%를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상자가 대체로 중·소도시 이상에 거주하고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하고 있으며 목회현장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40대 후반의 목회중진급 이상임을 알 수 있다.

2) 연구문제 1. 목회자가 경험하는 탈진의 실태 및 현황은 어떠한가?

(1) 목회자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탈진의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적 성취에서 가장 높은 탈진을 보였으며(26.3736), 그 다음으로 신체적 탈진(16.6374), 그 다음으로는 비개인화 측면(9.3516)과 영적 측면(9.12088)에서 유사한 수준의 탈진을 보였으며, 정서적 탈진(8.1429), 체계적 측면(7.8681), 사회적 측면(5.6264), 정신적 측면(2.6264) 순으로 나타났다.

(2) 목회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탈진에서는 응답자의 75.8%(69명)가 “나는 일하는 낮 시간 중에도 피로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신체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목회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탈진에서는 응답자의 62.6%(57명)가 “나는 쉽게 신경질이 나면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해 정서적 탈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목회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65.9%(60명)가 “나는 사람들과 만나 부딪치는 것보다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응답해 사회적 측면의 탈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목회자가 경험하는 정신적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31.8%(29명)가 “나는 당회나 제직회 모임을 하는 동안 웬지 불안하다”고 응답해, 다른 측면의 탈진에 비해 낮은 탈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목회자가 경험하는 영적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91.6%(83명)가 “나는 목회에 대한 나의 소명의식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라는 항목에 부정적으로 응답해 영적 탈진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목회자가 경험하는 비개인화에서는 응답자의 69.3%(63명)가 “나는 교인들의 사정에 대하여 관심을 잃었고 그들을 거리를 두고, 거의 기계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항목에 부정적으로 응답해 비개인화측면의 탈진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 목회자가 경험하는 개인적 성취 측면에서는 79.2%(72명)가 “나는 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나 지지를 그리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항목에 부정적으로 응답해 개인적 성취측면에서의 탈진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 목회자가 경험하는 체계적 측면에서는 55%(50명)가 “많은 교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변화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 부정적으로 응답해 체계적 측면에서의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목회자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탈진의 실태 및 현황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측면	16.6374	5.8357
정서적 측면	8.1429	3.0095
사회적 측면	5.6264	2.3125
정신적 측면	2.1648	1.3684
영 적 측면	9.12088	3.67222
비개인적 측면	9.3516	3.3078
개인적 성취 측면	26.3736	10.2455
체계적 측면	7.8681	3.2049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진의 8가지 측면을 모두 종합하여

목회자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탈진의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적 성취 측면에서 가장 높은 탈진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측면에서, 그 다음으로 비개인적 측면과 영적 측면과 에서 유사한 수준의 탈진을 보였으며, 정서적 측면, 체계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신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3) 연구문제 2. 목회자의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는 목회자의 탈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 이었다. 연구문제 2의 검증을 위해, 목회년수, 교회 출석인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양, 휴가 기간, 교회의 가족문제 이해, 교회의 가족 지원, 성역비, 소득비교, 사역시간, 부부갈등, 교인갈등, 자녀양육, 교인가정수 증가의 요인들이 목회자의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회년수, 교회출석 인원, 교인 가정수의 증가, 사역시간, 휴가 기간은 목회자의 탈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인들과의 갈등이 심할 수록, 신체적 탈진(.001*), 정서적 탈진(.000**), 사회적 측면(.003*), 정신적 측면(.001*), 개인적 성취측면(.000**)에서 탈진이 나타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체계적 측면에서 탈진(.029*)이 나타났고, 교회가 목회자의 가족문제를 잘 이해할수록, 신체적 탈진(.001*), 정서적 탈진(.040*), 영적 측면(.011*)에서의 탈진이 나타났고 교회가 목회자의 가족을 지원하지 않을수록, 비개인화 측면(.046*), 개인적 성취측면(.040*), 체계적 측면(.021*)에서의 탈진이 나타났고, 성역비가 낮을수록, 개인적 성취측면(.018*), 체계적 측면(.037*)에서의 탈진이 나타나고 있고 목회자의 개인의 소득을 타목회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낮다고 생각할수록, 영적측면(.49*)에서의 탈진이 나타났고 부부갈등이 심할 수록, 정서적 탈진(.008*), 사회적 측면(.030*), 정신적 측면 (.007*)에서의 탈진이 나타났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할수록,

신체적 측면(.008*), 사회적 측면(.004*), 체계적 측면(.016*)에서의 탈진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문제 3. 목회자의 탈진과 목회자의 가정생활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3은 목회자의 탈진과 목회자의 가정생활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목회자의 탈진과 사역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목회자의 주당 사역시간은 신체적 탈진(.257 $p < .05$), 정서적 탈진측면(.285 $p < .05$)에서의 탈진과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사역시간이 많을수록 신체적 탈진과 정서적 탈진에서의 목회자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목회자의 탈진과 교인갈등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인들과의 갈등은 신체적 측면(-.409 $p < .001$), 정서적 측면(-.444 $p < .001$), 사회적 측면(-.389 $p < .001$), 정신적 측면(-.403 $p < .001$), 개인적 성취 측면(-.452, $p < .001$)에서의 탈진과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교인과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탈진 중에서도 신체적 탈진, 정서적 탈진, 사회적 측면, 정신적 측면, 개인적 성취측면에서의 목회자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목회자의 탈진과 교인 가정 수 증가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교회의 교인 가정 수 증가는 신체적 탈진, 정서적 탈진, 사회적 측면, 정신적 측면, 영적 측면, 비개인화측면, 개인적 성취측면, 체계적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탈진에서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목회자의 탈진과 휴가 기간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목회자의 휴가 기간은 신체적 탈진, 정서적 탈진,

사회적 측면, 정신적 측면, 영적 측면, 비개인화측면, 개인적 성취측면, 체계적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탈진에서 모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목회자의 탈진과 교회의 가족지원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교회의 목회자 가족 지원은 신체적 탈진(.243 $p<.05$), 정신적 측면(.247 $p<.05$), 체계적 측면(.251 $p<.05$)에서의 탈진과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교회의 목회자 가족 지원정도가 목회자의 탈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목회자의 탈진과 성역비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성역비는 영적 측면(.293 $p<.05$)에서의 탈진과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경제에 대한 목회자의 심리적 부담이 영적 측면에서의 목회자의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목회자의 탈진과 부부갈등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목회자 가정의 부부갈등은 사회적 측면(-.242 $p<.05$), 정신적 측면(-.276 $p<.05$)에서의 탈진과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부갈등이 심해질수록 사회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에서의 목회자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목회자의 탈진과 자녀양육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목회자의 자녀양육은 영적측면(.216 $p<.05$)에서의 탈진과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목회자의 부담이 영적 측면에서의 목회자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현재 어떠한 해결방법과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① 목회자의 탈진과 영성 생활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목회자의 영성생활(말씀 읽기 및 기도)은 정서적 탈진(.217 $p<.05$), 정신적 측면(.217 $p<.05$), 영적 측면(.255 $p<.05$), 비개인화측면(.210 $p<.05$)에서의 탈진과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말씀 읽기 및 기도 등과 같은 목회자의 영성생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정서적 탈진, 정신적 측면, 영적 측면, 비개인화 측면에서의 목회자의 탈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목회자의 탈진과 가족과의 대화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목회자와 가족과의 대화는 정신적 측면(.058 $p < .05$)에서의 탈진과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목회자와 가족과의 대화이 이루어질수록, 정신적 측면에서의 목회자의 탈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목회자의 탈진과 스포츠나 레저 활동과 같은 목회자 개인의 운동생활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스포츠나 레저 활동과 같은 목회자 개인의 운동생활은 비개인화측면(-.207 $p < .05$)에서의 탈진과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목회자 개인의 운동생활을 할수록 비개인화 측면에서의 목회자의 탈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목회자의 탈진과 교인갈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성역 비	신체적 측면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신적 측면	영적 측면	비개인 화 측면	개인적 성취 측면	체계적 측면
성역 비	pearson 상관계수	1.000	.018	.138	0.029	.178	.293*	.036	.054	.083
	유의확률(양쪽)	.	.863	.192	.788	.092	.005	.734	.611	.434

$p < .05^*$, $p < .01^{**}$

<표 4> 목회자의 탈진과 성역비와의 상관관계 분석

		부부 갈등	신체적 측면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신적 측면	영적 측면	비개 인화 측면	개인적 성취 측면	체계적 측면
부부 갈등	pearson 상관계수	1.000	-.062*	-.186	-.242*	-.276*	-.029	-.127	-.153	-.072
	유의확률 (양쪽)	.	.558	.078	.021	.008	.782	.230	.147	.496

p< .05*, p< .01**

<표 5> 목회자의 탈진과 부부갈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부부갈 등	신체적 측면	정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정신적 측면	영적 측면	비개인 화 측면	개인적 성취측 면	체계적 측면
부부 갈등	pearson 상관계수	1.000	-.062*	-.186	-.242*	-.276*	-.029	-.127	-.153	-.072
	유의확률 (양쪽)	.	.558	.078	.021	.008	.782	.230	.147	.496

p< .05*, p< .01**

6. 결 론

이 분석 결과를 보면 목회자의 탈진이 신체적 탈진, 정서적 탈진, 사회적 측면, 정신적 측면, 영적 측면, 비개인화, 개인적 성취, 체계적 측면 중에서 개인적 성취와 신체적 측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을 보면 목회자들의 주된 스트레스는 교인들의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목회자의 교회에 대한 목표와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됨을 본다. 목회자의 자아 정체성과 평가가 성경과 성령보다는 사회적 평가에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음을 본다. 목표도 사회적 기준에서의 목표 설정이 되고 있음을 본다.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자아 정체성 확립과 교회 목표 설정이 필요한 것을 본다. 특히 사역비와 부부 갈등이 주요 탈진의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목회자의 성경적 가치관 확립의 문제가 개인과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됨을 본다. 물량적 성장보다 가치관의 확립과 사랑의 인간 관계형성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B. 기독교 신앙생활과 부부간 의사소통, 우울증, 결혼만족도의 관계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2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151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질문지가 수거되지 않았거나 문항 모두에 성실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13부를 누락시키고, 총 138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된 변인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인구학적 변인을 참고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전체 평균 38.76(표준편차 8.07)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였으나, 30대의 기혼남녀가 각각 45.7%, 42.6%였고, 40대의 기혼남녀가 각각 40%, 44.1%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기혼남녀의 평균 교육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전체 평균 16.65(표준편차 3.79)로 기혼남자인 경우 대학원졸 이상이 57.1%였으며, 기혼여자인 경우 대졸이 52.9%로였다. 직업은 여자의 경우 전업주부가 65.2%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는 일반 사무직이 20%를 차지했다. 월평균 수입의 경우에도 아내는 '없다'가 31.3%로 가장 많았으나, 남편은 50만원~500만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가족의 규모가 적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 가구형태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68.6%,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17.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결혼형태는 65.7%가 연애형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기간은 1년~2년 미만이 23.1%로 가장 많았다. 결혼지속연수는 1년~5년이 25.2%, 10~15년 미만이 21.3%, 20년 이상이 19.7%로 순이었다. 부모의 결혼생활 행복도는 남자는 '보통', 여자는 '비교적 행복'하거나 '보통'이라 답하였고, 부모가 자신들의 결혼에 대해 찬성한 정도에서도 남자는 '찬성하였다'가 57.1%, 여자는 '찬성하였다'에 43.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답하였다. 한편, 결혼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있다'고 답한 사람은 남자는 18.5%, 여자는 20.6%에 불과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로서, 부부대화법을 기초로 한 의사소통 문항들과 결혼생활의 만족을 측정하는 한국판 결혼생활만족도 검사, Beck의 우울 척도(BDI), 그리고 인구통계학적변인과 일반적인 대화경향성, 신앙생활 척도는 박희진이 2001년에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신앙생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여 총 28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의사소통 질문지

부부들의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채규만이 1996년에 도입된 부부대화법의 핵심내용과 선행연구들에서 부부의 의사소통 측정을 위해 많이 다루어졌던 문항들을 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송시내가 1999에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질문지는 두 차원으로 만들어졌는데, 한 차원은 부부대화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하기, 듣기, 문제해결 기술 내용과 부부대화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로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 왔던 일반 문항들을 수정하여 만든 53문항으로 대화·문제해결 기술정도를 측정하게 했다. 부부간에 의사소통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말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이 중에서 역산하여 채점하여야 할 문항들은 3, 4, 5, 7,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28, 30, 32, 34, 36, 37, 38, 39, 40, 41, 42, 44, 46, 47, 48, 49, 50, 51, 53이며, 총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최하 53점에서 최고 265점까지로 총점이 높을수록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 차원은 선행연구들과 부부대화법에서 원활한 대화에 방해가 된다고 언급되었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부부대화법을 기초로 하여 부정적인 대화유형 10문항, 부정적인 문제해결유형 13문항을 만들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게 했다.

이와 같이 총 76문항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질문지는 송시내를

포함하여 부부대화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5명의 검토를 거쳐 수정, 완성되었는데, 대화·문제해결 기술정도를 측정하는 첫 번째 차원에서는 내적일치도 Cronbach $\alpha = .94$ 를 부정적인 대화·문제해결 유형 사용빈도를 측정하는 두 번째 차원에서는 내적일치도 Cronbach $\alpha = .73$ 를 나타내었다.

2) 결혼만족도 검사

결혼만족도에 대한 다차원적 측정도구인 한국판 결혼생활만족도(K-MSI)의 검사는 Snyder가 1979에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권정혜, 채규만이 1998에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총 160문항이며, 결혼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K-MSI는 14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4) 비일관성 반응 척도(INC)은 이 연구에서 제외하고 13개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관습적 반응척도(CNV)는 응답자가 자신의 결혼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반응하여 결혼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올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타당도 척도이다. 나머지 결혼생활 만족도를 재는 12개 척도 중 전반적 불만족 척도(GDS)는 결혼생활에 대한 일반적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며, 나머지 11개 척도는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AFC),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PSC), 공격행동 척도(AGG), 공유시간 갈등 척도(TTO), 경제적 갈등 척도(FIN), 성적 불만족 척도(SEX), 관습적 성역할 척도(ROR), 원가족 문제 척도(FAM), 배우자가족과의 갈등 척도(CIL), 자녀 불만족 척도(DSC), 자녀양육 갈등 척도(CCR)로 결혼생활 특정영역에 관한 불만족도를 측정한다.

2점 척도(그렇다, 아니다)로 평정되는 이 척도는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긍정문항 (1, 2, 3, 4, 6, 10, 14, 15, 17, 18, 19, 21, 23, 24, 28, 29, 31, 33, 34, 36, 37, 45, 46, 49, 52, 53, 54, 56, 57, 59, 63, 66, 69, 72, 73, 74, 76, 82, 87, 89, 91, 93, 94, 95, 97,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14, 117, 120, 121, 130, 133, 135, 136, 137, 138, 139, 140, 142, 148, 150, 151, 152, 153, 154, 155, 158, 159, 160)은 역 채점하였다.

K-MSI를 구성하고 있는 14개의 하위척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반적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이혼이나 별거 등 부부관계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불만족, 다른 친밀한 부부관계와의 비교를 싫어하는 것을 기술하는 22문항 (GDS : 1, 10, 16, 22, 30, 35, 41, 42, 51, 58, 71, 78, 80, 89, 102, 104, 108, 114, 120, 131, 137, 13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과 전체적인 부부관계의 분위기를 측정한다. K-MSI(1998)에서는 Cronbach α = .92로 보고하였다.

(2)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Affective Communication)

배우자의 애정이나 지지부족, 정서적인 이해와 공감에 대해 기술하는 13문항 (AFC : 2, 8, 11, 46, 50, 72, 79, 85, 91, 95, 117, 132, 138)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자에게 느끼는 애정이나 이해에 대한 불만족과 관계에 대한 정서적인 친밀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K-MSI(1998)에서는 Cronbach α = .82로 보고하였다.

(3)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Problem-Solving Communication)

배우자와의 사소한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논을 회피하는 것, 구체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기술하는 19문항 (PSC : 5, 9, 17, 24, 27, 33, 40, 44, 53, 75, 81, 87, 92, 96, 106, 109, 115, 122, 12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해결 의사소통의 비효율성과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불일치를 측정한다. K-MSI(1998)에서는 Cronbach α = .84로 보고하였다.

(4) 공격행동 척도(Aggression)

배우자의 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과 응답자가 느끼는 공격에 대한 위협을 기술하는 10문항 (AGG : 20, 28, 38, 47, 57, 65, 74, 83, 93, 101)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경험한 배우자의 언어적, 신체적 공격 수준을 측정한다. K-MSI에서는 Cronbach $\alpha = .78$ 로 보고하였다.

(5) 공유시간 갈등 척도(Time Together)

부부의 공유시간, 여가활동의 부족 혹은 공유시간에 대한 관심 부족을 기술하는 10문항 (TTO : 7, 14, 34, 52, 62, 67, 82, 94, 98, 10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응답자가 느끼는 배우자와의 공유시간 부족, 부부간의 동료애를 측정한다. K-MSI에서는 Cronbach $\alpha = .73$ 로 보고하였다.

(6) 경제적 갈등 척도(Disagreement about Finances)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걱정, 배우자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부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을 기술하는 10문항 (FIN : 3, 13, 29, 37, 45, 60, 66, 90, 105, 118, 12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부부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불일치의 정도를 측정한다. K-MSI에서는 Cronbach $\alpha = .72$ 로 보고하였다.

(7) 성적 불만족 척도(Sexual Dissatisfaction)

성생활에 대한 불만족, 성관계에 대한 배우자의 흥미부족, 성관계 중의 배우자 감정 표현에 대한 불만족을 기술하는 13문항 (SEX : 6, 12, 32, 39, 59, 64, 70, 76, 88, 97, 111, 116, 12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응답자가 느끼는 배우자와의 성관계 빈도와 질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을 측정한다. K-MSI에서는 Cronbach $\alpha = .79$ 로 보고하였다.

(8) 관습적 성(性) 역할 태도 척도(Role Orientation)

가사 돌보기,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 가족 내의 의사결정에

서의 지위와 영향력의 공평성, 직업에 대한 기회와 중요성에 대한 형평성을 기술하는 12문항 (ROR : 4, 19, 21, 25, 36, 54, 73, 100, 112, 123, 130, 13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부관계와 부모로서의 역할에서의 성(性) 역할에 대한 응답자의 전통적 혹은 근대적인 태도를 측정한다. K- MSI에서는 Cronbach $\alpha = .71$ 로 보고하였다.

(9) 원가족 문제 척도(Family History of Distress)

원가족 내의 갈등이나 문제, 불행한 어린 시절, 불행한 부모의 결혼생활을 기술하는 9문항 (FAM : 23, 31, 49, 55, 69, 86, 99, 128, 135)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원 가족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나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지각이 현재 부부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K-MSI에서는 Cronbach $\alpha = .75$ 로 보고하였다.

(10)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Conflict with In-Laws)

상대 배우자가 응답자의 부모에게 비현실적으로 잘 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 배우자 가족으로 인한 부부갈등,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 양식을 기술하는 10문항 (CIL : 43, 61, 77, 84, 110, 113, 119, 127, 133, 134)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배우자 가족으로 인한 부부 갈등 정도를 측정한다. K-MSI에서 1998에 Cronbach α 를 .79로 보고하였다.

(11) 자녀 불만족 척도(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자녀의 적응에 대한 염려, 자녀 양육에 대한 불만족, 자녀와의 상호작용 부족과 갈등을 기술하는 11문항 (DSC : 143, 145, 147, 149, 150, 152, 154, 155, 156, 158, 15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느끼는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대한 걱정의 정도와 응답자와 자녀의 관계 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의 정도를 측정한다. K-MSI에서는 Cronbach $\alpha = .72$ 로 보고하였다.

(12) 자녀 양육 갈등 척도(Conflict over Child Rearing)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감 부족,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 훈육방식에 대한 배우자와의 불일치를 기술하는 10문항 (CCR : 140, 141, 142, 144, 146, 148, 151, 153, 157, 160)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부부관계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갈등 정도를 측정한다. K-MSI에서는 Cronbach $\alpha = .73$ 로 보고하였다.

(13) 관습적 반응 척도(Conventionalization)

부부관계에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부인하거나 부부관계를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하여 기술하는 10개의 문항 (CNV : 15, 18, 26, 48, 56, 63, 68, 103, 121, 124)으로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관계를 평가하고 왜곡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K-MSI에서는 Cronbach $\alpha = .80$ 로 보고하였다.

(14) 비일관적 반응 척도(Inconsistency : INC)

3) Beck의 우울 척도(BDI)

응답자들의 우울 정도는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Beck, 1967)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을 기초로 노은여가 1997에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BDI는 원래 우울증의 진단용으로 고안된 것이나 정상인의 우울 상태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울의 증상들이 전혀 없는 1(0점)에서부터 매우 심한 4(3점)까지 4지선다형으로 되어있다. 응답자는 0점부터 63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노은여가 보고한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 .86$ 이었다.

4)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일반적인 대화경향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 관심 있게 보았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수입, 결혼형태, 결혼 전 교제기간, 결혼지속연수, 자녀수, 만 자녀를 기준으로 한 가족생활주기, 부모님의 결혼생활 행복도,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찬성도, 가구형태, 종교, 신앙연수와 결혼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질문지 문항에 포함하였다. 또한, 부부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일반적인 대화경향성으로 많은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대화시간과 대화방식, 그리고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때 부부에 따라서는 대화시간이 평일과 휴일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분화하여 질문하였고, 통계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5) 신앙생활의 척도

신앙생활 척도는 박희진(2001)의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역 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한다(신앙생활 속도가 높다)로 볼 수 있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사랑의 교회, 희성교회, 동부교회, 그리고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우님들 중 기혼 남녀 220명에게 1부씩의 질문지를 배포한 후 질문지 내용이 많아서, 집에 돌아가 완성하여 일주일 후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질문지 작성 시 개인적으로 작성할 것을 부탁하였고, 대부분은 직접, 일부는 메일을 통해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설문지 배부한 것을 중심으로 응답해 준 결과들이 이 논문의 3가지 연구 질문의 답을 위해 분석이 되었다. 또한 각 표의 문항들의 설문 질문의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기독교 부부의 신앙생활과 의사소통기술, 부정적 대화유형의 문제해결, 결혼만족도, 우울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 빈도분석(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학적변인, 일반적인 대화경향성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5. 연구 결과 및 해석

첫 번째 연구 질문은 기독교 신앙생활과 부부간 의사소통 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앙생활과 부부간 의사소통간의 상관계수는 0.258로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의사소통 기술이 많다고 해석되었다. 또한, 신앙생활과 부정적 대화 유형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신앙생활과 부정적 문제해결 유형 사용 빈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문제해결 유형 중에서 회피형과 타협형, 겉돌기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회피형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회피형 문제해결 유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협형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타협형 문제 해결 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생활과 일반적인 대화경향성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평일과 휴일의 대화시간은 많아지며, 의사소통방식도 상호방향성이 높고, 의사소통의 만족도도 높다는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대화시간의 만족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주지 못하였다. 한편, 평일의 대화 시간이 많은 사람은 휴일의 대화시간도 많을 뿐만 아니라 대화시간의 만족도도 높으며, 의사소통방식은 상호방향성이 높고 의사소통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신앙생활과 부부간 의사소통간의 상관관계분석.

		신앙생활	의사소통 기술	말하기	듣기	문제해결
신앙 생활	Pearson Correlation	1	.258 (**)	.223 (**)	.188 (*)	.276 (**)
	Sig. (2-tailed)		.002	.009	.027	.001

$p < .05^*$, $p < .01^{**}$

< 표 7 > 신앙생활과 부정적 대화 유형간의 상관관계분석.

		신앙 생활	부정적 대화 유형	지시 설교	다툼	비난	잔소리	명령	빈정 대기	위협	충고	상처	우회 분노
신앙 생활	r	1	-.016	-.009	.038	-.043	-.127	-.103	.107	.120	.001	-.009	.034
	Sig.		.848	.914	.656	.620	.137	.227	.210	.162	.993	.915	.688

$p < .05^*$, $p < .01^{**}$

< 표 8 > 신앙생활과 부정적인 문제해결 유형간의 상관관계분석.

		신앙생활	부정적 문제해결 유형	다툼항복	설득형	회피형	타협형	겉돌기형
신앙 생활	Pearson Correlation	1	-.122	.067	-.114	-.316 (**)	.242 (**)	-.308 (**)
	Sig. (2-tailed)		.155	.433	.185	.000	.004	.000

$p < .05^*$, $p < .01^{**}$

두 번째 연구 질문은 기독교 신앙생활과 우울증과는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른 분석결과, 신앙생활과 우울증간의 상관계수는 -0.239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의 경향이 적은 것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우울증과 대화문제 해결기술에서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대화문제 해결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할수록 우울증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대화문제 하위 유형인 말하기, 듣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표 9 > 신앙생활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분석

		신앙성숙도	우울증
신앙성숙도	Pearson Correlation	1	-.239 (**)
	Sig. (2-tailed)		.005

p< .05*, p< .01**

세 번째 연구 질문, 기독교 신앙생활과 결혼만족도 관계성에 관한 것으로서, 신앙생활과 결혼만족도(K-MSI)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GDS), 정서적 의사소통 척도(AFC), 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PSC), 공격행동 척도(TTO), 성적 불만족 척도(SEX), 원가족 문제 척도(FAM),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CIL), 자녀 불만족 척도(DSC), 자녀양육 갈등 척도(CCR), 9개척도 모두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각 영역에 있어서의 불만족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4개 척도인, 공격행동 척도(AGG), 경제적 갈등 척도(FIN), 관습적 성역할 척도(ROR), 관습적 반응 척도(CNV)는 신앙생활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 대화 해결 유형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는 관습적 성역할 척도(ROR), 관습적 반응 척도(CNV)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부정적 대화와 부정적 문제 해결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는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송시내(1999)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특히, 관습적 반응 척도(CNV)는 부정적 대화와 부정적 문제 해결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관습적 성역할 척도(ROR)은 두 가지 요인과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 표 10 > 신앙생활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분석.

	신앙 생활	GDS	AFC	PSC	AGG	TTO	FIN	SEX	ROR	FAM	CIL	DSC	CCR	CNV
신앙 생활	r	1	-.187 (*)	-.240 (**)	-.190 (*)	-.079	-.217 (*)	-.058	-.206 (*)	.010	-.203 (*)	-.178 (*)	-.213 (*)	-.186 (*)
	Sig.		.028	.005	.026	.355	.011	.500	.015	.903	.017	.037	.012	.029

p< .05*, p< .01**

부부 생활에 있어서 신앙 성숙이 대화 기술과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만 듣기보다는 말하기와 문제 해결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본다. 깊은 인격적 대화의 곤란이 있을 수 있음을 본다. 신앙 성숙이 대화 기술에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 언어 습관(지시, 다툼, 비난등)을 제어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본다. 또한 부정적 문제 해결을 제어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회피와 겉돌기와 같은 극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신앙성숙이 될 수록 도움을 주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앙 성숙이 문제 해결의 미봉책인 타협의 문제 해결과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도 적극적이며 긍정적 문제 해결보다는 타협의 문제 해결이 신앙성숙과 관련되어 있다. 신앙생활이 또한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인 공격적 행동과 습관적인 성역할, 경제에 대한 불신뢰, 사소한 거짓말이나 긍정적인 왜곡등에는 관련이 없는 것을 본다.

C. 기독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1.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서울 지역에 있는 S교회 교인 중에서 중, 고등부 청소년들과 대학원서접수를 하기 위해 총신대학교에 방문에 고등학교 3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2. 견본 추출 면접 대상자

서울에 위치한 S교회의 중, 고등부 청소년들과 대학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총신대학교에 방문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다.

총 55부의 설문지를 돌린 가운데, 그 중 일부는 회수되는 시점에 분실되거나 또는 통계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부분적으로만 응답해 전체 질문에 응답한 50명의 설문지로만 연구 분석하였다.

3. 조사를 위한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설계된 방법은 위에서 설정한 세 가지 연구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 작성된 설문지이다. 본 설문지에는 총 41문항의 질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개인의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 7문항과 신앙생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7문항, 스트레스 빈도와 요인에 관한 질문 24문항,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질문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부록으로 설문지 전면을 첨부하였다.

4. 자료 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교회의 중, 고등부 예배가 있는 주일날을 기점으로 2001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 간에 걸쳐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 55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부수는 50부였으며 회수율은 90%정도였다.

5. 자료 수집의 한계

정보 제공자들은 중, 고등부 청소년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개념의 이해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자료 분석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낮출 확률이 있다고 본다.

6. 자료 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 질문 순서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일반정보에 대한 분석과 개인의 신앙상태에 관한 분석, 제2절에서는 기독교 청소년들이 겪는 주요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분석, 제3절에서는 기독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조사 분석, 그리고 마지막 제4절에서는 신앙생활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SPSS (ver.10.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7. 연구 결과 및 해석

설문지를 통한 자료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대상자의 일반정보와 개인의 신앙상태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한 수는 총 50명이었으며, 남학생이 56%, 여학생이 44%로 구성비율을 이루고 있다. 연령대로는 19세가 전체 응답자의 48%로 가장 많았으며, 18세가 18%, 15세가 14%로 그 뒤를 이었다. 중학생이 30%, 고등학생이 70%로 설문대상자인 기독교 청소년 50명중에는 고등학생이 주층을 이루고 있었다. 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중위권으로 답한 학생이 8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하위권이 12%, 상위권이 2%로 분석되었다. 부모님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은 70%가 대졸 이상으로, 어머니의 학력은 50%가 고졸, 36%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신앙상태에 관한 분석결과로는 먼저 교회에 다닌 횟수는 모태신앙이 72%로 가장 많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의 유무확인에서는 78%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답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가에 관한 질문에서도 역시 78%가 ‘예’라고 답하였다. 기도시간과 말씀생활, 예배생활 그리고 교회활동에 관한 질문에서는 매일 2~3분씩 기도한다는 학생이 44%, 매일 7~10분씩 기도한다고 30%였으며, 성경은 거의 안 읽는다고 답한 학생이 42%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일주일에 3~4번은 읽는다고 36%로 분석되었다. 교회에서 임원이나 봉사활동의 여부에 대한 응답은 ‘아니오’라는 답변이 54%, ‘예’라는 답변은 46%였다. 그리고 예배참여도에서는 매주 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말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6%를 차지함으로, 전반적으로 예배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들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는 먼저 전체 응답자의 70%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답했다. 학교, 교회, 가정 이 세 장소 중에서 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학교가 58%, 가정이 40%로 분석되어 기독교 청소년들도 학교 못지않게 가정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두드러진 증상에 대해서는 40%가 화가 난다(이유 없는 분노)고 답했고, 몸이 아프다가 18%, 힘이 없이 무기력해진다가 14%, 식욕장애가 일어난다가 10%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독교 청소년의 58%가 스트레스의 세 가지 증상,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대인 관계적 증상 중에 심리적 증상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왔고, 그 뒤를 이어 34%의 비율이 신체적 증상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으로는 학교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고,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 친구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이나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4항목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된 것으로 보아 기독교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분석 결과로 먼저 대처행동 유형에서는 아무일 하지 않고 쉰다가 30%, 친구와의 수다로 풀다가 20%, 소리 질러 크게 노래한다와 생각하고 무조건 참는다가 각각 12%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 맘껏 울어버린다 등의 의견들도 있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 기독교 청소년들은 대처행동 50%가 혼자 하는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있으며, 24%가 대인 관계적 행동, 14%가 인지지향 행동, 10%가 객체관련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도움 지각에 관한 물음에서는 66%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26%가 잘 모르겠다, 8%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넷째, 신앙생활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자료 분석에서는 결과에서는 기도생활을 많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클수록 학교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게 나타나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들 간에는 가정환경이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학교성적, 친구관계, 성격이나 외모 스트레스 역시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표 11> 신앙생활과 스트레스 상관관계

	구원의 확신	기도생활	말씀생활	교회활동	예배 참여도
학교성적 스트레스	-.425**	-.322*	.577	.199	-.097
친구관계 스트레스	.243	-.699	.361	-.563	.553
가정부모 스트레스	-.101	.258	-.069	.505	-.038
성격/외모 스트레스	.048	.281	.145	.249	-.070

p< .05*, p< .01**

<표 12> 스트레스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학교 성적	친구 관계	가정 부모	성격 외모
학교 성적	1.000	.024	.300*	.200
친구 관계	.024	1.000	.422**	.175
가정 부모	.300*	.422**	1.000	.392**
성격 외모	.200	.175	.392**	1.000

p< .05*, p< .01**

7. 결 론

청소년의 경우를 보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와 가정이고 단일 원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에 있음을 나타내준다.

III. 목회 현장에 맞는 기독교 상담

Paul G. Hiebert의 세계관의 패러다임(도표1)⁴⁾을 보면 세계관, 신념체계, 이론, 경험의 4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 한 사람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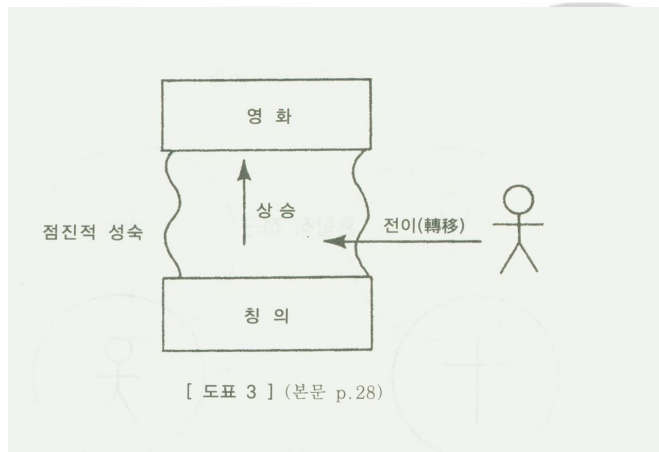
4) Paul G. Hiebert,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김영동, 안영권역,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서울: 죠이 선교회 출판사, 1997), 45.

신체계가 형성됨을 본다. 첫째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목회자 자신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성도들도 무장시키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가장 큰 필요중의 하나이고, 둘째로 부정적 대화 습관을 긍정적 대화 습관으로 바꾸며 자녀들을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아래 키우는 것이다.

첫째의 경우는 Lawrence J. Crabb의 도표⁵⁾대로 구원의 복음전파와 그에 합당한 복음적인 생활을 확실히 가르치고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적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상담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의 경우는 신자안의 부정적인 대화의 습관을 고치고 긍정적이며 창조적 대화 스타일이 가르쳐지고 경험되어 지도록 하되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 성경적인 교육관을 가진 성경적인 부모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도표 1>



5) Lawrence J. Crabb, *The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 출판사, 1982), 197.

※ 참고 서적

- Crabb, Lawrence J. *The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9.
- 성은숙. “기독교 신앙생활과 부부간 의사소통, 우울증, 결혼만족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3.
- 최승희. “기독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1
- 최종철. “목회자의 탈진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목회자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2.
- Hiebert, Paul G.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김영동, 안영권 공역.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서울: 조이선교회. 1997.

KCI

Christian Counseling & Pastoral Situation

This article has a purpose to look at the practical pastoral situation in a systemic and objective statistics and analyze its present matrix of problems so that the timely and relevant Christian counseling practice could be set up. Christian counseling is concerned about individual's personality making and his/her relationships with others. It is not a purely theoretical discipline, but a practical discipline. To prepare relevant theories to the present situation by analyzing the real issues is very necessary.

To make a close survey at pastoral settings three Master level theses under my mentorship are summarized: "Study on the Burnout factors of Pastors," "The Relationships between Faith, Couple Communications, Depression, Marital Satisfaction," Study on the Christian Youths' Stresses and their Solutions. These three theses are showing the realities of Korean churches, even though they are limited in many ways.

The results of this writing are twofold. One is the absence and confusion of Biblical values in the core values of church growth. The other is the seriousness of mis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lack of the positive and creative talk experiences in the most Korean people. These two are the most important tasks ahead in the area of Christian Counseling.

*** Key words**

Pastoral Burnout,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stress, Beck Depression Inventory, Couple Communications.